

## “고성의 자존심과 자긍심 살려줬다”

본지 창간 1주년 독자들 격려의 박수 ... 새해엔 공정하고 세심한 보도 주문도

**창간 1주년**  
 GOSEONG WEEKLY NEWS

고성신문이 31일로 창간 1주년을 맞은 가운데 고성지역 주민들은 지난 1년간 지역의 다양한 소식을 전하며 고성의 자존심과 자긍심을 심어준 고성신문에 박수와 함께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.

또 창간 2년째를 맞는 올해는 보다 공정하고 세심한 보도를 하고, 농업인과 노인계층, 여성, 아동,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보도의 비중을 높여줄 것도 당부했다.

**이영일** 고성군변영회장(사진)은 “고성신문은 지난 1년간 지역의 주요 이슈를 많이 다뤄 고성군의 긍지와 자부심을 많이 높였다고 생각한다”며 “앞으로도 언론의 기능인 정보전달은 물론 공정성과 사실성에 바탕을 두고 좀 더 세심한 보도를 위해 노력을 해주길 바란다”고 말했다.



이영일



김완식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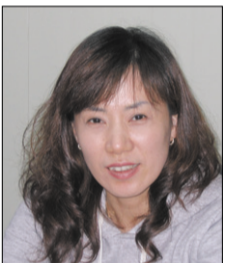
김영희



안한수



최창범



엄미경

**김완식** 고성군 노인회장(사진)은 “고성신문이 생긴 것이 옛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됐다니 참으로 축하드린다”며 “고성군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고, 고성군민의 자존심과 자긍심을 세워준 고성신문이 있다는 것이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더없이 기쁘다”고 했다. 또 “앞으로도 소외된 노인들을 위해서 함께 동고동락하는 고성신문이 돼 주길 바란다”고 덧붙였다.

**김영희** 고성군 여성단체협의회장(사진)은 “지난 1년 동안 신문을 만들기 위해 애쓰신 분들 모두 고생 많으셨다”며 “고성신문

이 언론 본연의 역할에 충실한 가운데 날로 번창하기 바라며, 당당하게 살아가는 여성들을 위한 소식도 많이 전해 주기바란다”고 했다.

**안한수** 고성군 농업경영인연합회장(사진)은 “첫 생일을 맞이한 고성신문을 축하하고, 신문을 만드는 관계자들에게 박수를 보낸다”며 “앞으로도 지역 곳곳의 소식들을 잘 빠르게 전해주시길 바라며, 어려움에 처해있는 농업종사자들을 위해 농업관련 분야의 소식을 다양하게 전달해 주길 바란다”고 했다.

**최창범** 고성군수협 현내지점장

(사진)은 “고성군이 면적이 커 주민들 간의 소통이 부족한 것이 늘 고민이었는데, 고성신문이 매개체 역할을 해 줘서 좋았다”며 “한 눈에 지역의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어서, 어느 신문보다도 더 꼼꼼히 살펴보고 있다. 앞으로도 주민들의 의식을 깨워주고, 올바른 정보 전달로 영원히 번창할 수 있는 고성신문이 되기 바란다”고 했다.

**엄미경** 고성군 사회복지협의회

사회복지사(사진)는 “아이들도 돌 행사를 거창하게 하는데, 고성군의 유일한 지역신문인 고성신문의 첫 돌을 군민모두가 축하하고 격려해야 할 것 같다”며 “우리가 하는 일이 사회복지분야이다 보니까 그 쪽에 많은 관심이 간다. 지역의 아동, 청소년, 장애인 등을 소개해주는 코너가 좀 더 많이 마련됐으면 좋겠다”고 했다.

원광연 기자

**추천! 고성지역 맛집 가행 ② 8면**

**NH NongHyup**

**농협**

창간 1주년  
 GOSEONG WEEKLY NEWS

희망찬 내일을 향한 발걸음  
**농협이 함께 합니다**

농업인이 농협의 50년을 만들었습니다. 농협이 농업인의 50년을 만들겠습니다.  
 농업인의 복지향상은 물론, 우리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활동까지-  
 앞으로도 농협은 이 땅의 농업 · 농촌 · 농업인을 위해 더 열심히, 더 부지런히 일하겠습니다.

저희 고성지역 농협은 농업인과 농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

**농협중앙회 고성군지부**  
 지부장 박 상 기

**거진농협**  
 조합장 김 정 만

**금강농협**  
 조합장 최 학 철

**토성농협**  
 조합장 김 명 한